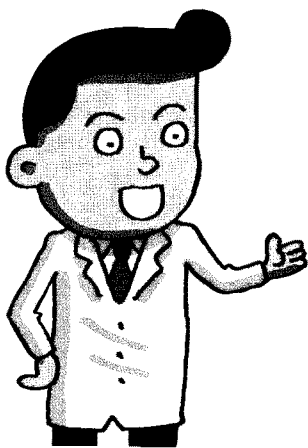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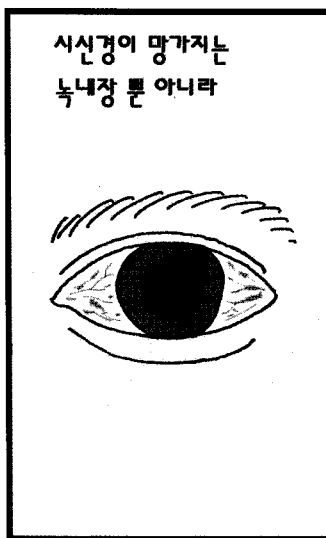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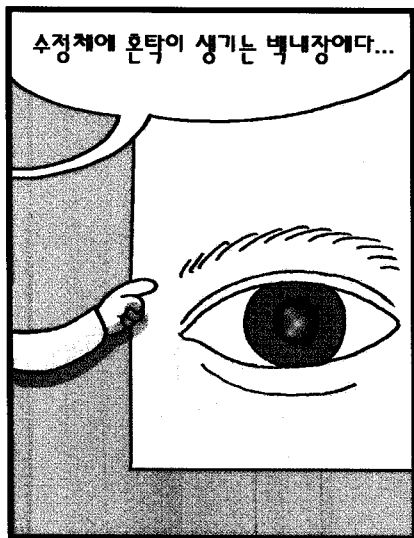
만화로 쉽게 이해하는 당뇨망막병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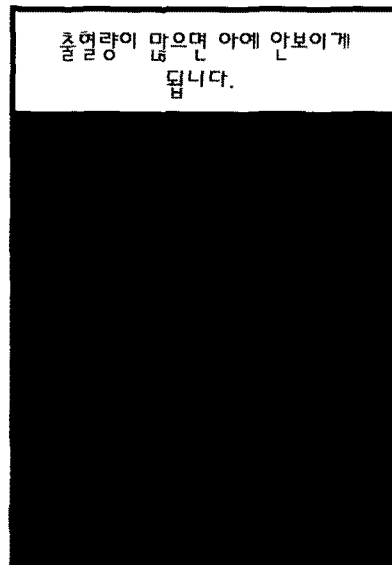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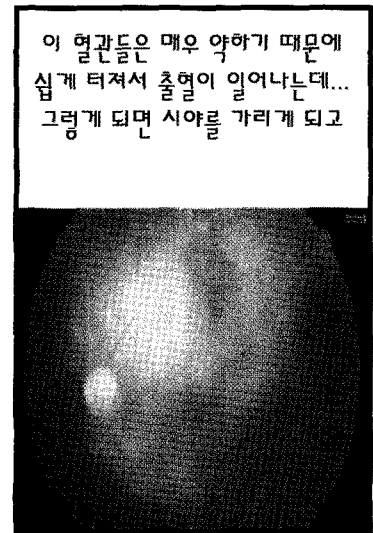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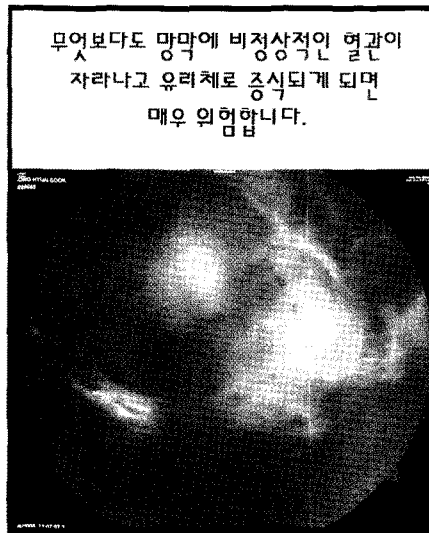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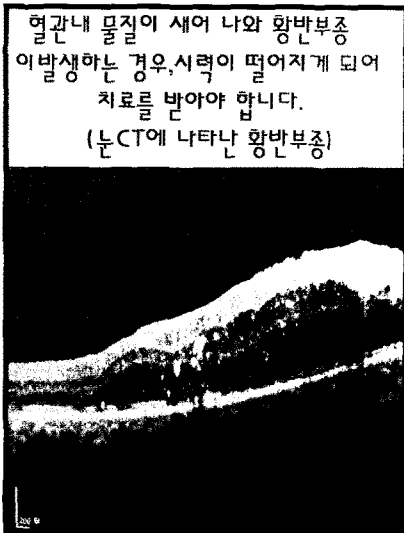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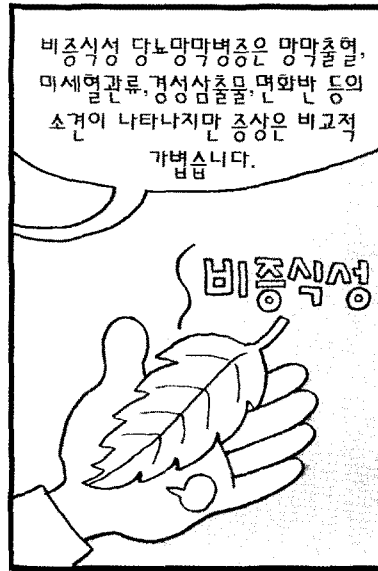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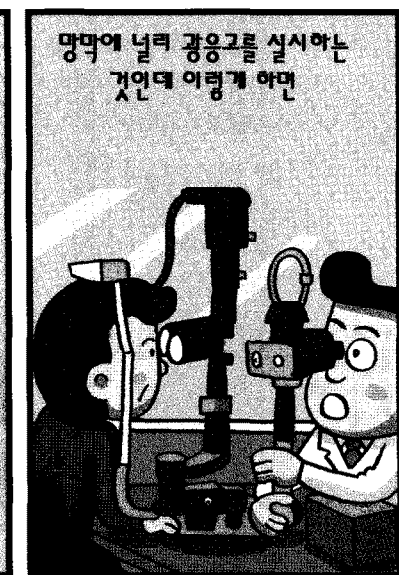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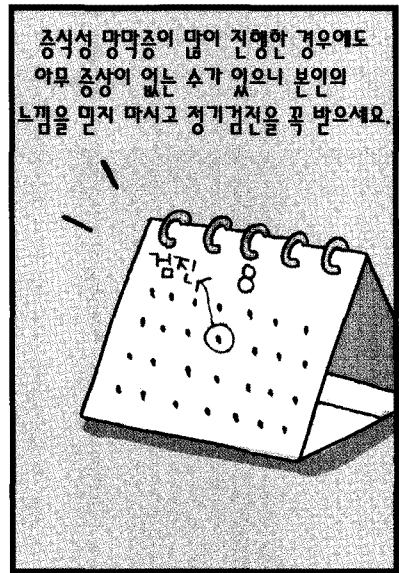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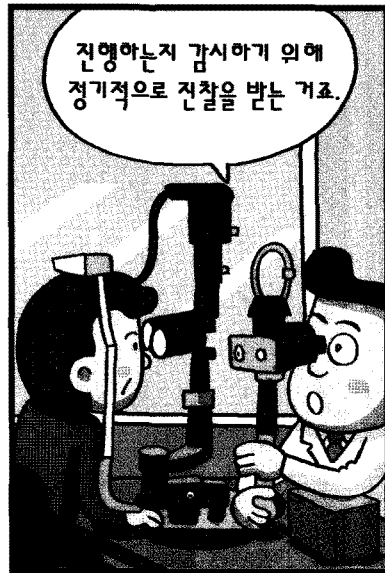
최근 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발병 10년을 기점으로 실명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. 그 원인은 당뇨망막병증 때문. 대한안과학회가 지난 1년간 조사한 결과 당뇨병이 발병한 지 10년 이하의 환자들은 눈 질환이 나타나지 않거나(25%), 비교적 실명위험이 적은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(45%)이 발견됐다. 하지만 11년부터는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해 20년이 넘으면 최대 72%까지 그 위험성이 높아진다. 당뇨망막병증은 일단 발생하면 혈당조절이 잘 돼도 시력이 많이 손상되고 교정도 힘들어 당뇨병에 걸리면 초기부터 안과진료를 받아 실명 위험을 줄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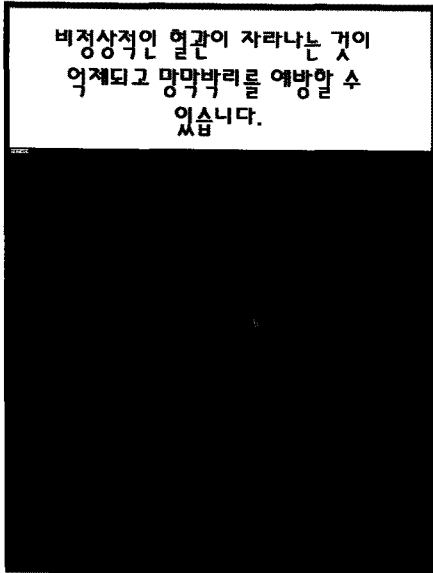
이에 공안과에서 당부하는 당뇨망막병증에 관한 내용을 만화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고자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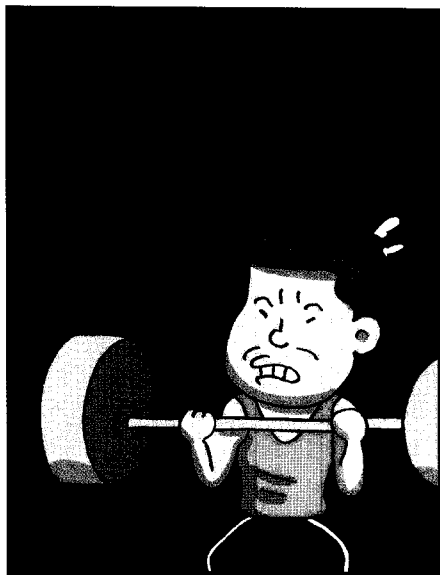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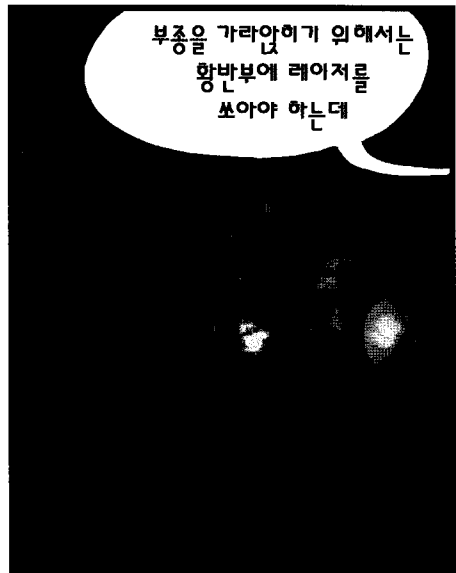
자료제공/공안과











※ 이 자료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.